

「중국 정치·외교 초점」

胡錦濤 부주석의 3개국 순방; 주요 성과와 의의

I. 순방 개요와 일정

중국 胡錦濤 국가 부주석이 말레이시아 정부와 吳作棟 싱가포르 총리 및 덕 체니 미국 부통령의 초청을 받아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이들 3개국을 각각 공식방문하고 4일 귀국했다.¹⁾ 胡錦濤 부주석은 나갈 때는 錢其琛 국무원 부총리의 배웅을 받으면서 떠났다가, 돌아올 때는 溫家宝 국무원 부총리의 영접을 받았다.

부주석의 이번 순방에는 부인 劉永清과 李肇星 외교부 부부장, 劉江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부주임, 俞計劃 중앙관공청 부주임, 李學勇 과학기술부 부부장, 馬秀紅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 鄭新立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을 비롯한 60여명의 대규모 수행단이 동행했다.

이 번 순방의 핵심은 5박6일간 진행된 胡 부주석의 첫번째 미국 방문이며 대내외의 관심 또한 이에 집중되었다. 미국에게 胡 부주석은 미지의 인물이었으며,²⁾ 이번 방문은 미국 조야가 중국의 지도자가 될 胡 부주석을 직접 접촉하여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³⁾

1) 胡錦濤 부주석은 2001년 11월에 유럽을 순방했다. 미국은 지난 2월 부시 대통령이 방중하여 胡 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방미를 초청했었다.

2) 胡錦濤 부주석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수수께끼’라고 평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는 이런 평가가 매우 불공평하다고 본다’고 가볍게 반박했다.

3) 하버드 대학교 페어뱅크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前 소장인 보겔(Ezra Vogel)은 *Washing Post*지에 기고한 글에서 ‘胡錦濤 등 4세대 지도자들은 이전의 혁명가들과 달리 CEO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 외교관계위원회 중국전문가인 이코노미(Elizabeth Economy)는 ‘중국은 최근 몇년간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胡錦濤의 이번 방미를 중국을 재인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결코 21세기 소련의 재현이 아닌데도 미국의 많은 관리들이 이에 대해 무지하다. 중국은 더이상 절대주의 국가도 아니고, 팽창주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지도 않으며, 미국의 세계지도자 지위에 위협이 되지도 않는다’고 평가했다. 「亞洲週刊」, 第19期(2002년5월12日).

[순방 일정]

- 4. 2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도착
- 4. 24 말레이시아 국가원수 및 마하트니 수상과 각각 회견
- 4. 26 싱가포르 도착 / 싱가포르 대통령 접견 / 吳作棟 총리와 회담
- 4. 27 李顯龍 싱가포르 부총리 회견
- 4. 27 미국 하와이 도착 / 진주만 아리조나호 기념관 참관
- 4. 28 미국 뉴욕 도착
- 4. 29 뉴욕증권거래소 방문 / 9.11 세계무역센터 테러현장 방문 / UN본부 방문, 코피 아난 사무총장 회견 / 뉴욕시장, 뉴욕주지사, 뉴저지주지사 각각 회견 / 키신저 전 국무장관 접견 / 「미국 은행가 협회」 주최 만찬 참석
- 4. 30 워싱턴 도착 / 미 의사당 방문, 상하원 지도자 접견 / 미국 오늘 재무장관, 에번스 상무장관, 윌리 USTR 대표 각각 회견 / 파월 미 국무장관과 만찬회담
- 5. 1 백악관 방문, 딕 체니 미 부통령과 오찬 회담 / 펜타곤 방문, 럽스펠드 국방장관과 회담/ 백악관에서 부시 미 대통령과 회견 / / 라이스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 회견 /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 등 8개 단체 주최 만찬 참석
- 5. 2 샌프란시스코 도착 / 샌프란시스코 시장, 캘리포니아주지사, 워싱턴주지사 각각 접견
- 5. 3 실리콘 벨리(「Intel」사) 방문 / 샌프란시스코 출발
- 5. 4 北京 도착 귀국

II. 순방의 주요 내용; 미국 방문을 중심으로

胡錦濤 부주석은 미국 도착성명에서 자신의 이번 미국방문은 ‘江澤民 주석과 부시 대통령이 북경회담에서 거둔 공통의 인식을 구체화하고, 중미간 고위층 접촉을 강화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중국과 미국의 건설적 협력관계의 앞으로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胡錦濤 부주석은 진주만의 아리조나 기념관과 뉴욕의 9.11 테러현장 방문이라는 매우 상징적인 행사를 통해 미국인들의 정서에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胡 부주석은 테러 현장에서 '희생자에 대한 심심한 애도'를 표시하고 모든 희생자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그는 또한 '9.11 사건은 테러리즘이 국제적 공해이며, 국제사회는 협력을 강화하여 이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胡 부주석은 뉴욕 증권거래소와 실리콘밸리 등을 방문해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제발전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는 한편,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호소했다. 胡 부주석은 '우리는 증권거래소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밝히고, '중국의 WTO 가입은 앞으로 중미 경제무역 협력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胡 부주석은 미국은행가협회가 주최한 만찬연설에서 '중미 경제무역관계와 정치관계는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촉진적이다'고 지적하고, '양국은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며, 양국간의 모순과 이견은 타협적으로 처리해서 중미간 경제무역협력을 위해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胡 부주석은 8개 단체 주최 만찬 연설에서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양자가 이익이고, 대항하면 모두 상처받는다는 것을 역사와 현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胡錦濤 부주석은 이번 방문기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핵심 인사와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대부분 만났으며, 이런 자리를 빌려 대만 문제와 인권 문제, 중국의 WTO 가입 및 핵확산 방지문제 등 현안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미국의 이해와 동의를 촉구했다.⁴⁾ 胡 부주석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관련된 사안이고 중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핵심 문제로, 대만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영향을 줄 것이다'고 지적하는 한편 '중국은

4) 胡錦濤 부주석은 의사당 방문시 미 민주당 하원원내총무인 펠로시 의원이 전달하려는 '중국내 정치범 석방 촉구 서한'의 접수를 거절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과 중미간 3개 공동성명의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중국이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대만문제의 민감성을 이해한다. 미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정책을 수행하고 미중간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이며, 미국측의 이러한 정책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胡 부주석은 또한 체니 부통령과 만나 '대만독립 세력이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최대 장애이고 그들의 활동이 대만해협의 평화에 최대 위협이다'고 지적하고, '미국측이 그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⁵⁾ 체니 부통령은 '부시 정부는 하나의 중국정책을 견지하며,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측은 대만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III. 주요 성과와 의의

胡 부주석의 이번 해외 순방은 해결해야 할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 구축'에 주요 목적이 있었다. 胡錦濤 부주석은 이번 순방에서 기존의 국가간 관계를 다지면서 자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胡 부주석은 특히 미국 방문에서 미국인에게 정서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대만 문제 등 정치적 영역에서 중국의 입장을 관철하고 경제영역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미국의 중국계 전문가인 方焘은 胡 부주석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구체적으로 양국 정상외 교환방문 확대를 통한 교류협력 증진 합의, '중국정책 불변' 약속 재확인, 군사교류 재개 및 증진 합의, 개혁개방 성과와 대만문제 중요성 홍보라는 4가지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서방언론의 집중보도를

5) 陳哲南 대만 총통부 부비서장은 胡錦濤의 이번 워싱턴 방문과 관련하여, '대만은 胡錦濤와 미국 지도자의 회담이 대만의 이익에 위해를 미칠 것으로 우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胡錦濤의 이번 방문이 대만의 안전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대만 관계가 단교후 어느 때보다 양호한 상태에 있다는 자신감에 기초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亞洲週刊』, 第19期(2002年5月12日).

통해 국제사회에 겸손, 침착, 민첩, 온화한 이미지를 심어 차세대 지도자로서 위상을 제고한 것도 큰 수확이라고 분석했다.⁶⁾

중국 지도부는 胡錦濤 부주석의 이번 순방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 이런 점에서 胡 부주석의 이번 순방은 차기 지도체제 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⁸⁾ 胡 부주석 자신도 이번 순방중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교민과 만난 자리에서 ‘올 가을 열리는 16大에서 새로운 영도세대가 나온다’고 차기 지도부 구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이는 최고 지도자 승계와 관련하여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胡 부주석이 입국할 때 이전처럼 외교를 담당하는 錢其琛 부총리가 아니고 농업을 담당하는 溫家宝 부총리가 이례적으로 胡錦濤 부주석을 영접한 사실도 올 가을 구성될 새 지도부의 구도를 드러낸 징표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⁹⁾ 즉, 기존의 江-朱체제(江澤民 국가주석-朱鎔基 국무원 총리)에 이어 胡-溫체제(胡錦濤 국가주석-溫家宝 국무원 총리) 구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6) 「연합뉴스」, 2002. 5. 5.

7) 「明報」, 2002. 5. 5.

8) 胡錦濤 부주석의 순방기간, 江澤民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曾慶紅 중공당 조직부장이 일본을 방문했다. 또한 차기 국무원 총리로 유력시되고 있는 溫家宝 부총리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다. 중국의 4세대 지도부 구성에서 핵심인물로 꼽히고 있는 3인이 비슷한 시기에 각각 외국을 방문하여 국제무대에 자신을 선보이고 능력을 검증받는 모양새가 되었다.

9) 「明報」, 2002. 5. 6.